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인협, 인쇄전문인력 양성 상반기교육 마쳐

◆ 동 정

▶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7월 12일 '제1회 한국정경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됐으며, 김재운 의원은 김소남, 박보환, 박선영, 이종혁 의원과 함께 한국정경문화대상 정치발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부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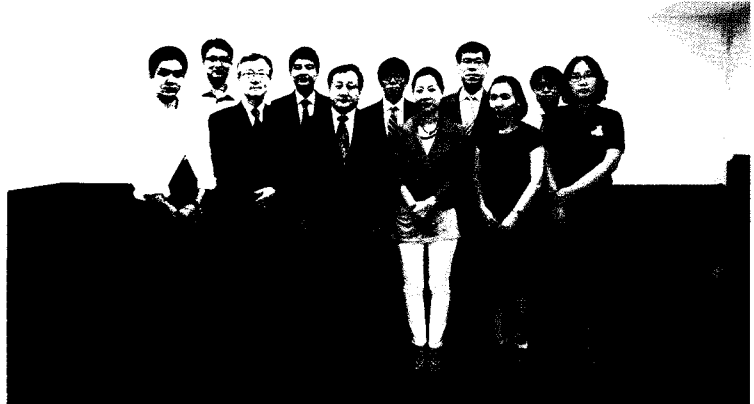
▶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의 빙부가 지난 7월 3일 별세했다.
▶ 위성진 we프린팅코리아 대표의 부친이 지난 7월 22일 별세했다.

◆ 이 전

▶ (주)애드프럼(대표이사 소대수)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인현동1가 136-20으로 이전했다.
▶ 펄텍코리아(대표 원기조)는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테크타워 B동 지하1층으로 이전했다.
▶ 씨마스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1-7으로 이전했다.
▶ 상록문화정보연구소는 최근 사업장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걸포1로 39 오스타파라곤 302동 101호로 이전했다.

◆ 변 경

▶ (주)신성문화인쇄(대표이사 이종철)은 최근 업체명을 (주)신성토탈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백조아트뱅크(대표이사 김현덕)은 최근 업체명을 라온아트로 변경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한 2011년도 상반기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 지난 7월 14, 15일 각각 수료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마쳤다.

인디자인 편집실무(매주 화요일), 인쇄물 무역실무(매주 목요일) 등 2개 과목이 진행된 이번 상반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됐다. 김남수 회장은 수료식에 참가, "인쇄물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협회도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협은 하반기에도 인쇄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 서울인쇄센터, 2011동경도서전 참가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2011 동경국제도서전에 수출상담관을 마련했다. 수출상담관에는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 해인기획(대표 류명식), 씨마스커뮤니케이션(대표 이미래), 타라TPS(대표 이원순)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서울인쇄센터는 서울시로부터 부스임대 및 통역서비스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해마다 동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인쇄시장에서 진출이 가장 어려운 일본에 한국인쇄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일본 출판 및 인쇄사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서울인쇄센터,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출품작 공모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는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출품작을 지난 7월 29일까지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자인쇄물(일반서적, 잡지, 연감·백과사전, 종교경전·사전류 등의 박엽지 인쇄, 기타 책자인쇄물) ▲상업인쇄물(리플렛·카달로그·브로슈어, 캘린더, 우편엽서·청첩장·카드, 포스터, 기타홍보인쇄물) ▲생활인쇄물(전표 등 서식류, 통장, 전산용품 등의 사무용 인쇄물, 라벨 및 스티커 인쇄물, 포장인쇄물, 캔·병·지관·금속 등 특수인쇄물, 기타 생활인쇄물) 등 인쇄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인쇄디자인 관련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분야를 새로 만들고 출품비(3만원)도 받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출품작은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다수를 뽑는다. 수상자에게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서울인쇄문화축제기간 중 서울시장상이 주어지며 조직위로부터 별도 부상도 주어진다. 수상작은 축제기간 동안 서울광장에 특별전시되고 그 뒤엔 인쇄문화홍보관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문화부,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한글박물관은 2013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건축면적 11,322㎡(34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면적 4200㎡ 규모로 건립된다. 한글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유물 중심의 전시를 넘어 한글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글박물관의 전시는 크게 한글누리, 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기획전시실로 구성된다. 1층 한글누리실에서는 한글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검색과 정보를 공유한다.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한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3층은 교육체험실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는데, 교육체험실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학습하고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관람 대상별 체험 교육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명 및 가변형 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착공 행사에서는 한글 창제, 한글의 생활화, 한글의 세계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는 문화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행사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브라스밴드, 취태대, 현대무용단, 100여 명과 신용산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 18명 등이 출연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착공 행사에는 10월 한글 주간에 앞서 방영될 서울방송(SBS) 한글 관련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출연자인 장혁, 신세경씨 등이 행사에 참가했다.

▼ 잡지협회,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중 수여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잡지회관 4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1년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50개사 잡지 대표에게 선정중 수여식을 가졌다. 최종 선정된 50종의 잡지는 올해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문화소외지역 및 관련단체에 지원·보급된다.

이창의 회장은 "내년도부터는 우수콘텐츠 사업의 배포처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잡지협회는 문광부, 기재부 등을 직접 방문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잡지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잡지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증을 받은 잡지들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유가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2011년 4월 15~25일까지 공개 공모를 통하여 접수받은 총 126종의 잡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학계·언론계 및 잡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잡지의 분야는 각각 시사·경제·교양지 9종, 여성·생활정보·건강지 8종, 스포츠·취미·레저지 7종, 문화·예술·종교지 10종, 과학·기술지 7종, 산업·농수축산지 5종, 교육·학습지 4종으로 기사내용 및 사진, 편집 및 디자인, 사회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정했으며 각 부문별 등급을 매겨 점수로 환산했다.

▼ 마포구청, 마포구소재 인쇄사에 1억원 신용보증 지원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군)과 손잡고 마포구 소재의 인쇄 및 출판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에게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마포에는 인쇄 출판업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1259개소가 밀집해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출판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마포구는 인쇄·출판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37억 원을 지원하고 마포구에서 특별신용보증 한도액 중 13억 원을 출연, 총액 50억 원을 확보하여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업체당 1억원 이내(총 보증금액 50억원 범위내)로 지원하며, 금리는 약 4.8%(변동금리, 보증수수료 별도)다. 신용담보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이며,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연중 수시 접수)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특별신용보증추천 신청서 1부(마포구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년도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 등)다. 접수는 마포구청 3층 중소기업상담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 02-3153-9971~2

▼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 등에 따른 관련 법안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녹색기업 지정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차별화·간소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한 녹색경영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개 기준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총 14개 기준으로 세분화, 각 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에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이 미흡했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녹색기업은 (2011년 7월 현재) 대기업 95.4%, 중소기업 4.6%, 제조업 97.4%, 비제조업 2.6%로, 대기업 및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40시간근무제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인쇄사를 대상으로 40시간근무제 설명회를 가졌다.

김종찬 공인노무사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44시간근무제에서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며 "올해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어 대부분의 인쇄업종이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40시간제는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일뿐 반드시 주5일제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직접생산확인제 강화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하며, 중기청은 하도급을 통한 물품생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은 최근 불법행위 의심신고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시를 강화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직접 생산 확인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위반사례가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1000개 이상의 대규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합에 위탁했던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원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임명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비조합업체간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실태 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들의 수당도 현재의 150%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처리기간도 14일 이내서 10 일 이내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도 부과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구매시장에서 불법행 위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고용시 ‘출국만기보험’의무가입

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 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에 따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을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출국만기보험은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8월 1일 이후인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8월 1일 이전에 고용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 급하면 된다.

이밖에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 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게 돼 있는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2년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서울시, 서울서체 업그레이드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

서울의 고유골격을 널리 활용되며 도시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서울서체로 명조계열인 서울한강체 2종(Light, Medium)과 고딕계열인 서울남산체 4종(Light, Medium, Bold, Extra Bold), 세로쓰기 1종 등 총 7종이 개발되었습니다.

※ 모두 무료 및 맥용으로 제공되며, 아래 사용환경을 확인하신 후에 활용해주세요.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스마트폰용 서울서체 2종(서울한강체 Bold, 서울남산체Bold)을 개발하고 Windows7에서 사용 가능하도 록 서울서체 가족군 19종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청 현판사인, 사설안내 사인, 이동시청 차량, 주민센터 현판, 서울 공공 건축물의 현판, 보행자 안내사인, 공공 기관 유니폼, 지하철 안내사인, 서울형어린이집 간판, 서울시 새주 소, 문화재 안내사인 등에 적용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일반 시민이 나 사업자의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를 통 해 배포되는 서울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매체, 영상매체, 웹 등 다양한 매체에 자유로 게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상업적 행 위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체는 지난해에 비해 호감도 (52.5%→67.5%)와 인지도(27.0%→49.9%)가 모두 상승한 것으 로 밝혀졌다.

▼ 서울시, 여성 기업인 중소기업 자금 융자시 우대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여성 기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 는 등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 오세훈 시장과 전순표 서울경제위원회위원 장 등 중소기업 대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상공회의소 자치 구 상공회별 여성CEO 51명으로 구성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경제 모 니터단’ 위촉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모니터단은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모니터링하고 여 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공 등 활동을 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단 의견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반기 1회 간담회를 개 최하는 등 여성의 시각에서 서울시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금 지원과 마케팅, 판로에 있어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하 고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여성이 행복한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자금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여성기업인에게 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5점)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7월 말부터는 생계형 여성 자영업자와 여성고용 우수기업도 5억원 범위내에서 시중금리보다 2~3%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판로지원과 관련, 중소기업 해외통상사절단과 해외 전시·박람회 참 가 시 여성기업에게 가점을 부여(10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 수출 상담회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DMC 첨단산업센터 입주심사 시 여성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3 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설 입주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창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창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시립 직업전문 학교에 여성특화 직업훈련과정(요양사보호사, 양장기능사)을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실도 운영하고 있다.

신민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의 30세 이상 인구 중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 여성이 43.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3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30.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잠재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인이 편하게 일하는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여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달청,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확대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특히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되고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전력이 수요로 하는 제어케이블이 새롭게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 추가됐다. 또한 총액계약에만 적용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비닐절연전선, 강심알루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에 대해서는 단가계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중소기업, 빛 값을 능력 격차 더 벌어져

대기업은 돈을 벌며 빛을 값을 능력이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은 영업으로 번 돈을 통해 투자를 늘렸지만 중소기업은 영업과 투자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10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에서 나왔다. 한은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업체 중 제조업체 6778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지난해 단기 지급능력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됐다. 단기지급 능력의 잣대로 활용되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이 67.8%로 직전연도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다.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그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현재 금융사에 지고 있는 단기채무를 전액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빛 상환 능력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지난해 더 크게 벌어졌다.

대기업의 현금흐름보상비율은 96.3%로 전년(89.8%)에 비해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31.0%로 전년(34.7%)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빛을 상환할 능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은 더 큰 격차를 드러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이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대기업은 829%에서 1022%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440%에서 402%로 떨어졌다.

현금 유입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활동도 부진했다.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대기업은 평균 1398억원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21.2%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24억원으로 7.8% 감소했다.

▼ 올해 한계중소기업 2200여개 구조조정

산용보증기금이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은 보증총량을 늘려 유동성을 지원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올 상반기에 한계 중소기업 1000여개를 구조조정 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0여개를 추가해 올해 총 2200여개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총량을 당초 예정보다 8000억원 늘려 지난해와 같은 38조8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인택수 신보 이사장은 7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 “20년 이상 보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기업도 문제이고,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 한계기업도 문제인만큼 이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지난 4월에 착수해 6월 말까지 약 1000여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1200여개를 구조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신보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기업에 대한 상환 비율을 높여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10% 상환을 요구했는데 못했을 경우 올해는 상환비율을 20%로 올리는 식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증 지원이 사라지고 부실화돼 일련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한계 기업은 보증 만기시 20~30%를 상환해야만 보증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자금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20년 장기고액보증이 줄어들면 이를 미래성장동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판별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는 업종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의 신용조사서를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으로 나눠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당초 올해 전체 신용보증 목표액을 지난해(38조 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일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그동안 건설업 전용 유동화증권(CBO)을 별도로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3000억원 내외를 추가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보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20개씩 총 100개의 신보스타 기업을 육성, 지원키로 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겹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이사장은 “최대한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성, LG 등 대기업이 매출채권 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에 나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돕기로 했다.

▼ 신보, 올 하반기 중소기업에 3.7조 신규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에만 3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신보는 당초 올해까지 연간 총 8조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목표금액을 8000억원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신용보증 목표금액도 45조5000억원에서 4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9일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보증 총량을 늘려오다가 최근 경기회복세에 맞춰 다시 줄인 바 있다”며 “보증 감축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시 신규 보증 목표액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보는 녹색산업, 수출 등 신성장 동력분야와 창업, 고용창출 기업 등 일자리 창출분야 중소기업에 11조4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2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과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기업에 지원된 보증은 줄이기로 했다. 보증 감축 대상 기업은 전체 23만개 중소기업의 0.9%인 2000개 가량이다.

중소기업의 신용을 조사할 때 쓰이는 신용조사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의 신용조사서를 썼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 보증기업이 속한 업종을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업종별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표자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업 특성별 신용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20개씩 100개의 ‘신보 스타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개별 기업당 2년간 3차례에 걸쳐 일정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가장 낮은 요율(연 0.5%)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신용조사와 현장 원스톱 신용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보증절차도 간소화했다. 3억원 이하의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연대 보증인이 없는 개인 기업에 한해서는 본점 방문 절차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수립을 위해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장단기 경영목표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9월 2일 개최

청주시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직지상 수상자는 호주 국가기록원이다.

이번 시상식은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돼 전 세계 미디어의 새 길을 연 직지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1377명의 청주 청원 주민 대합창단’ 축하공연과 리셉션, 경축음악회, 학술회의, 장황특별전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가 열린다. 먼저 시상식 전날인 9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시립교향악단의 경축 음악회가 열린다.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해 수상자를 환영하고 축하하며, 직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눈다.

9월 2일 시상식에서는 오후 1시30분부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1377명이 함께 참여하는 대합창단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축하공연에 참여하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1377명은 인터넷 동영상과 노래교실 강습 등으로 합창연습을 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직지홀’에서 수상자인 호주 국가기록원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 리셉션이 열린다.

9월3일 오후 2시에는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속활자 직지와 미디어와의 학술적 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한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주고인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훼손된 도서 등을 복원해 미적가치와 보존가치를 보여주는 한국의 장황특별전이 열린다.

▼ 청주고인쇄박물관, 1인1책 폐내기 54점 선정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반재홍)은 제5회 청주·청원 1인1책 폐내기 운동 1차 출판원고를 공모한 결과 58점을 접수, 이 가운데 54점을 출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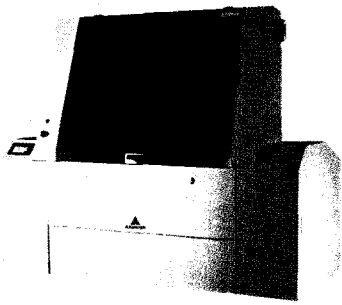
시는 채택된 원고에 출판비 30만원을 지원한 뒤 완성본 10부를 기증받아 청주·청원 도서관 등에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 1책 폐내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행본 507점, 북아트 2860점을 출판했다. 출판한 시민들은 나만의 소중한 책을 만들어 평생의 기쁨과 추억을 간직하게 됐고, 직지의 고장 청주 시민으로서

문화적 자부심도 갖게 됐다.

2차 출판원고 접수는 오는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접수 문의는 청구고인쇄박물관(043-200-4546) 또는 세계직지문화협회(043-268-6086)로 하면 된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 대정인태내셔널, 한일아트에 UV CTP '프리즘' 납품



(주)대정인태내셔널(대표이사 송갑선)은 이달 초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주)한일아트(대표이사 황원근)에 UV CTP 장비인 프리즘을 납품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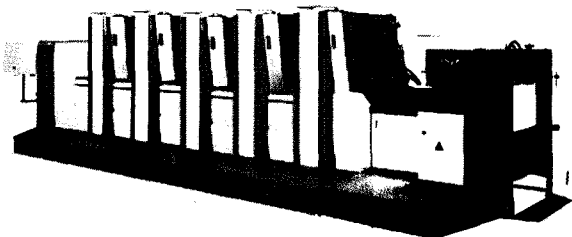
한일아트는 출력전문 업

체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로 고객 만족에 기여해 왔다. 한일아트의 황원근 사장은 "지금까지 필름 출력기 외 서멀 CTP 장비를 운영해왔으나 경쟁력 확보와 원가 절감 등 어려운 시장 경제속에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리즘 장비를 선택했다"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납품되는 프리즘은 600mW 광원과 128채널로서 2540dpi에서 시간당 38장의 고속 생산이 가능하다.

대정인태내셔널의 관계자는 이번 납품과 관련, 장비 납품을 통해 업체에 혁신적인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력 확보를 기대하며 국산 기술로 제작되는 프리즘의 UV CTP 시스템은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A/S를 통해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가격적인 부담을 낮춰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음커뮤니케이션, 5색 인쇄기 도입



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 박진만)은 지난 7월부터 4×6 2절 대응이 가능한 5색 편면 인쇄의 사쿠라이 OLIVER-575SD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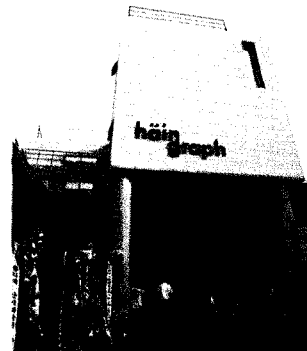
마음커뮤니케이션에서 도입한 사쿠라이 OLIVER 575SD는 4×6 2절

부터 장6절까지 폭넓은 종이 사이즈에 대응할 수 있으며, 보다 폭넓은 인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림밀 축을 구부리거나 꺾지 않고도 인쇄판을 장착할 수 있는 자동 인쇄판 교환 장치(SPC)가 탑재되어 있다. 70mm의 두께의 견고하고 중후한 프레임 구조를 바탕으로 시간당 최대 1만5000매의 고속 인쇄에서도 높은 가능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마음커뮤니케이션의 박진만 대표는 "이번 사쿠라이 5색 인쇄기 OLIVER-575SD도입을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 생산품인 장6절 사이즈의 표지 인쇄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더욱 더 높이고, 효율적인 생산라인 구축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인기획, 신사옥 오픈



(주)해인기획(대표이사 류명식)이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신사옥 오픈식을 가졌다.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이뤄진 사옥은 지하 2층에는 하이델베르크 5색기 2대가 설치돼 있는 인쇄실이, 2층에는 해인그라프 사무실과 CTP실이, 1층은 갤러리, 2층은 한국문화재연구재단에 임대, 3층은 게

스트하우스와 한국문화재연구재단으로 이뤄져 있다. 3층 게스트하우스는 색교정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꾸며졌다.

류명식 대표는 "해인기획 신사옥을 방문해 주신 인쇄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끊임없는 기술투자과 연구를 통해 '고품질인쇄'하면 해인기획이 떠오를 만큼 열심히 일했다. 오늘 신사옥 오픈을 계기로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인기획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인기획 신사옥 주소는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7이다.

▼ 성진에드컴, 각종 연수대회에 DTPIA 스타북 선보여



성진에드컴 (대표 이정희)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인천시 강화도 로얄 유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로사진협회 '제26차 인천 광역지회 하계사진세미나' 및 7월 14~15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사진앨범인쇄조합연합회 '2011 전국조합원연수대회'에 참가해 쉽고 간편하게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는 스타북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간편함과 다양성을 내세운 스타북은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도 세계적인 포토북 프로그램 TAOPDX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며 스타북은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포토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자동 사진배열 기능 등 단 몇 분 만에 쉽게 포토북 편집이 가능해 고객의 짧은 납기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는 스타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파일이동이 가능해 작업 장소에 제한이 거의 없다.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무료로 포토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최소 1부 부터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고 처음 사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진PMS, 23회 고모리스쿨 개최



일진PMS(주) (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7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주)고모리 코퍼레이션과 공동주최로 제23회 고모리스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고모리스쿨은 업계 종사자 총 15명이 참가했으며, 공장환경을 개선하는 5S활동, 인쇄일반이론, 인쇄기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유지보수 방법 및 트러블 대책법, KHS-AI(고모리 하이퍼 시스템), CMS 이론 등에 대해 하타노 과장, 스즈끼씨, 시바타씨의 지도아래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담당한 하타노 과장은 "매년 한국 연수생들의 열기에 감동 받고 있으며 강의하는 동안 즐거웠다.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꼭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KGC는 고객을 서포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동일본 지진에 대한 한국의 응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모리스쿨은 매년 여름 동경 고모리 본사 인근에 소재한 '고모리스쿨'에서 실시해왔으나 작년부터 2009년 가을 새롭게 오픈한 KGC(고모리 그래픽 테크놀로지 센

터, 쓰쿠바 소재)에서 실시된 이래 두 번째로 KGC에서 개최됐다. KGC는 고모리 쓰쿠바 공장내에 신설된 센터로 프린팅컬리지, 시연 센터, 훈련센터, R&D센터,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KGC내에는 최신형 고모리 인쇄기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중 고모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테스트 인쇄, 고모리 서비스맨 트레이닝, 각 기업체와 합작으로 인쇄 신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성도GL/성도솔루션, 임직원 대상 코칭 교육 진행



(주)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칭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코칭 전문가로 이름나 있는 김광호 교수를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실습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져 경청의 능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주)성도GL/성도솔루션에서는 코칭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만들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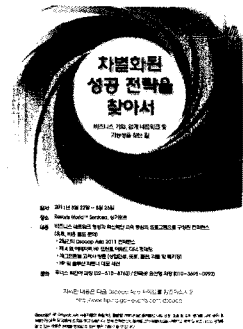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션, 임직원 문화 체험 공연 관람



(주)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6월 21일 국립해오름극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성도의 문화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공연 관람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산물을 관람하면서, 직원들에게 문화 발전의 중요성과, 성도가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동안의 문화경영에 대한 토의 등 이념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은 다양한 문화경영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문화 체험을 통한 업무능력/개인감성 향상, 사회 문화소외지역의 아동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공헌에 힘쓰는 등 업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HP, 이달 22일부터 제2회 디스콥 아시아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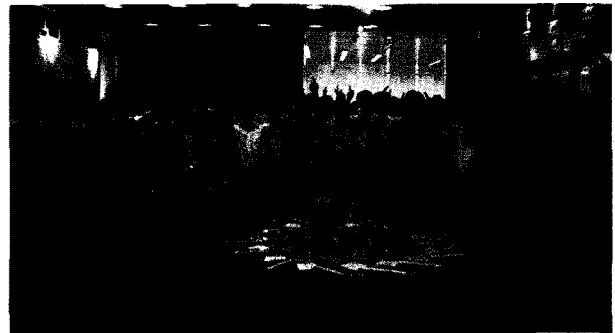
HP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회 디스콥 아시아 (DSCOOP Asia)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제4회 아태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스콥 (Digital Solutions Cooperative)은 전 세계 4300여 인디고 및 사이텍스 프레스 고객사가 참여하는 교육

과 체험, 업계 교류 커뮤니티로 지난 2005년에 설립되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 디스콥 아시아 컨퍼런스에는 1000여명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제 2회 디스콥 아시아 컨퍼런스는 '차별화된 성공 전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섬 리조트 월드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 기간에는 디지털 프린팅 시장 전반 및 향후 트렌드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은 물론, 사진, DM, 출판, 라벨 및 패키징, 비즈니스 마케팅, 대형 포맷 등 성장하는 이미징 프린팅 비즈니스의 차별화와 브랜딩, 포지셔닝 및 파트너십 구축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션 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싱가포르 분야별 레퍼런스 사이트 견학, HP 데모 센터 및 잉크 공장 방문 등 디지털 프린팅 관련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 최신 HP 인디고 프레스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디스콥 아시아 기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쇄 및 패키징 업계에서 HP 인디고 및 사이텍스 프레스를 사용해 뛰어난 성과 및 혁신을 달성한 업체에게 수여하는 '제4회 아태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 그룹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를 총괄하는 김병수 상무는 "이번 디스콥 컨퍼런스를 통해 성장하는 디지털 프린팅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HP 역시 고객의 디지털 프린팅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프린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DSCOOP Asia 사이트 (www.hpindigo-events.com/dscoo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영업 혁신 선포식' 가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7월 20일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사옥에서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 혁신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영업 혁신 선포식'을 통해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행동력, 스스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인 구심력, 자기를 다스리고, 스스로 깨닫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의 지식력 등 3가지 저력을 길러 자립, 고공, 박학함을 두루 갖춘 우수사원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풍토 혁신, 실무 혁신, 교육·마인드 혁신 등 3가지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으로, 분위기 모티베이션 향상을 이룰겠다는 풍토 혁신은 판매 부서의 긍정적인 경쟁을 위한 Sales Grand Slam 쟁탈배, 영업 혁신을 테마로 회사 곳곳에 포스터 게시, 가족 단위로 캐논을 이해하고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직장 가족 견학회, 사내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Thanks Card 제도 및 신입사원 별론 환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관계자는 "이번 영업 혁신 선포식을 통해 영업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영업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지식을 준비해 정보에서 고립되지 않는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2018년 매출액 2조원을 목표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달성감', '복리후생', '쾌적환경', '캐논 프라이드' 등 새로운 발상을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는 물론 고객 만족까지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후지제록스·메트라이프생명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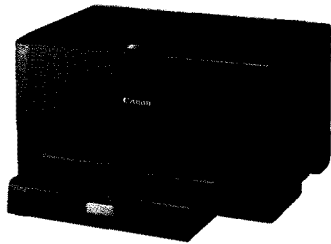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와 메트라이프생명(대표 김종운)은 지난 7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MetLife생명 본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의 문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종운 메트라이프생명 사장과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후지제록스가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의 일환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사내에 구축한 문서출력센터 오픈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후지제록스는 메트라이프생명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합기, 프린터 등 약 1천 여대의 출력기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서출력 업무와 관련된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메트라이프생명의 문서환경을 조사·분석한 후 출력기기를 최적으로 재배치했으며, 기기의 상태 및 출력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기 장애로 인한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광식 메트라이프생명 구매·총무팀장은 “최근 기업의 문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문서출력을 통해 중요 문서에 대한 보안이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력기기 관리 및 모니터링, 문서제작 등 통합적인 문서관리를 한국후지제록스에 일임함으로써 직원들이 핵심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문서 출력 비용 또한 절감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문서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출력기기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문서 업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서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제품 뉴스

▼ 캐논, 컬러레이저프린터 LBP 7016, 7018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대표 김천주)은 지난 7월 13일 사진동호인 및 흑백레이저프린터를 주로 사용하는 소호 사무실 고객을 위한 컬러레이저 프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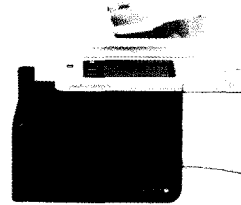
LBP7016C, LBP7018C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두 제품은 A4용지를 기준으로 분당 컬러 4매, 흑백 16매를 출력하며 회복시간이 약 10초로 경쟁모델에 비해 50%이상 짧은 것이 특징이다. 캐논코리아의 관계자는 “개인 고객뿐 아니라 기존 흑백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소호 사무용 고객까지 모두 겨냥한

이번 신제품을 통해 엔트리컬러 레이저 프린터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며, 회복시간 단축, 카트리지 교체 편의성 증대 등으로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기업용 고성능 복합기 CM505 da 출시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7월 19일 기업용 고성능 A4 컬러 레이저 복합기 다큐프린트 CM505 da (DocuPrint CM505 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다큐프린트 CM505 da는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다큐프린트 시리즈의 가장 최신 모델로, 컬러와 흑백 모두 분당 최고 45페이지에 달하는 등 동급 최고 인쇄 속도를 자랑한다. 1200 × 1200 dpi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하고 첫 페이지 인쇄에 걸리는 시간 또한 10초 미만으로 서류 작업이 많은 기업에 최적화된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팩스는 옵션 사항이다.

높은 보안성이 장점인 다큐프린트 CM505 da는 시큐어 프린트 (Secure Print) 기능이 대표적이다. 이 기능은 허가받은 사람이 중앙 패널에 보안 코드를 입력할 때까지 문서를 바로 인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대기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민감한 스캔 또한 암호 입력을 필수로 하는데 이는 기업 관련 데이터의 보안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사항을 고려한 기능이다.

황유천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사장은 “IDC 자료에 따르면 컬러 복합기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객들은 점점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의 컬러 복합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다큐프린트 CM505 da는 이러한 시장 흐름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술력 면에서는 다른 어느 경쟁사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컬러 복합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니콘, 간편한 접사 촬영용 마이크로 렌즈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접사 촬영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DX 포맷용 마이크로 렌즈 AF-S DX Micro NIKKOR 40mm f/2.8 G를 지난 7월 12일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 렌즈는 니콘 DX 포맷 전용 렌즈로 최단 촬영 가능 거리가

0.163 m인 접사 용 마이크로 렌즈다. 특히 작고 가벼우면서도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DSLR 카메라 초보자나 기본 렌즈만 사용하고 있는 유저에게 적합하다.

또한 초음파 모터(SWM=Silent Wave Motor)를 탑재하여 정숙하게 곤충이나 동물 등의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M/A(메뉴얼 우선 오토 포커스) 모드와 M(메뉴얼 포커스) 모드 등 2개의 포커스 모드를 탑재해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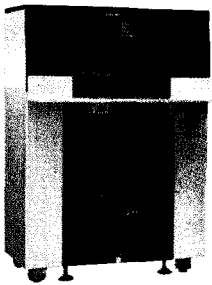
AF-S DX Micro NIKKOR 40mm f/2.8 G 는 초점거리 40 mm, 최대 조리개 개방 수치가 f/2.8이며, 7군 9매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DX 포맷 전용 렌즈는 니콘 DX 포맷 DSLR 카메라 D300S, D90, D7000, D5100, D3100 등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한 렌즈이다.

발매 예정일은 8월 25일이다.

홈페이지_ www.nikon-image.co.kr

▼ 후술, 소형재단기 S-cutter 출시



후술(대표 김주호)은 디지털 인쇄 후가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S-cutter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후술에서 출시한 S cutter는 경인쇄 및 디지털삽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소형재단기 입에도 최신 터치모니터 컴퓨터가 탑재되어 대형재단기 못지않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510mm까지 재단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이 쉽고 서보모터를 통한 정밀한 재단이 가능하다. 콤팩트한 사이즈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용이하고,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디자인 뉴스

▼ 제17회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개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제17회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를 오는 9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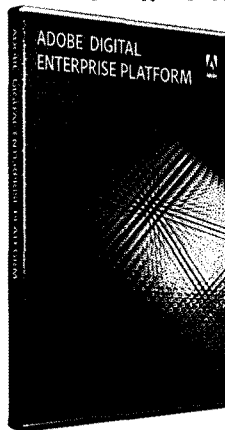
올해 공모대회는 청소년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질병과 빈곤, 재해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을 돕고 희망을 전해주는 뜻을 표현하는 '희망나눔'이 주제다. 공모 참가방법은 A4 크기 하드보드(가로 20cm×세로 15cm, 또는 가로 15cm×세로 20cm) 앞면에 '작품'을 붙이고, 뒷면에는 우체국 창구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접수표'를 붙여 우정사업본부 우표팀으로 동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미술·디자인·우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21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www.koreapost.go.kr)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에게는 지식경제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특별상 15명(청소년 10명, 일반 5명)에게는 우정사업본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 공모대회 부문별 최우수작 작품은 2012년에 우표로 발행되는 영예도 안게 된다.

한편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는 지난 1992년에 처음 열렸으며, 96년부터 세계대회로 격상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표팀 (02-2195-1258)

▼ 어도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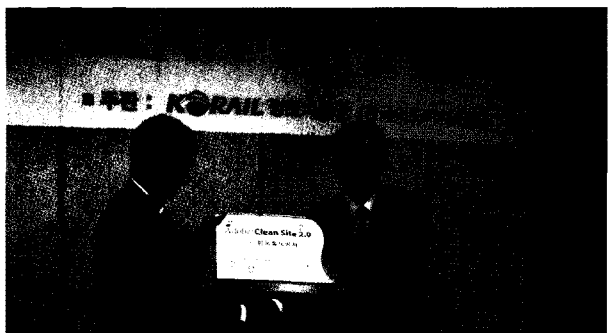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6월 28일 고객 경험 관리(CEM)을 위한 어도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발표했다. 어도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기업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셜 및 모바일 고객들과 디지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도비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객 경험 솔루션을 통해 마케터 및 기업 임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맞춤형 네트워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IT 조직내 모든 사업부에 걸쳐 고객간의 교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은 마케팅과 IT 측면 모두에서 고객 창출, 유지, 그리고 브랜드 지지에 대한 고객들의 경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어도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신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도비시스템즈 홈페이지나 전화문의(02-530-8075)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 어도비, 한국철도공사와 ACSP 협약식 체결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한국철도공사 정보기술단에서 어도비 클린 사이트 프로그램(이하 ACSP)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어도비 애크로벳 X 및 어도비 포토샵에 대한 ACSP 인증을 받는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ACSP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ACSP를 통해 어도비 제품에 대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직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박양석 정보기술단장은 “코레일은 클린사이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시마다 라이선스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해지고 저작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약식은 향후 ACSP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기업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길 바라며, ACSP를 효율적인 자산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_ www.adobe.com

▼ 니콘이미징코리아, 소셜 미디어 서비스 오픈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최근 니콘의 연중캠페인 ‘a shot a day’의 일환으로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채널을 공식 개설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하는 니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채널은 하루에 한 장씩 사진을 찍으며 YG패밀리가 찍은 오늘의 사진과 내가 찍은 오늘의 사진이 함께 모여 더욱 즐거워지는 하루를 만들어 간다는 컨셉으로 제작됐다.

이번 소셜 미디어 채널 개설은 니콘의 풍성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주요 채널은 니콘 유튜브(www.youtube.com/nikonimagingkorea)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nikonimagingkorea) 등 총 2개 채널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니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채널에서는 니콘 제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니콘 제품 사용 팁, 다양한 사진 및 TV-CF, 메이킹 필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마케팅팀 김동국 팀장은 “이번 니콘 소셜 미디어 채널은 니콘 유저는 물론 카메라 초보자들과 카메라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사진에 대한 흥미를 갖고 올바른 사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외 향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은사진미술관, 기억과 트라우마전



©정광삼, 남포동, 1968. gellatin silver print

고은사진미술관과 고은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일까지 ‘기억과 트라우마’ 사진전을 고은사진미술관 신관에서 개최한다. <기억과 트라우마>전은 사진활동이 본격화된 193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의 부산사진의 역사를 정리하고자하는 전시이다.

김광석, 김정석, 박기동, 박하원, 배동준, 손묵광 등 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총 150여점이 전시된다.

본 전시는 사진자료를 토대로 부산을 역사속에서 맥락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대별 영역 안에서 주된 경향의 사진 흐름과 의미 있는 사진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을 띤 작품을 선택했고, 미학적 관점과 한국 사진사적 맥락에 따라 분류하고 구성하고자 했다.

<기억과 트라우마>전은 부산사진의 존재방식을 묻는 데서 출발하여 부산사진이라는 항목이 한국사진, 나아가 세계사진에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홈페이지_ www.goeunmuseum.org

>> 제지 뉴스

▼ 중국산 아트지 인쇄용지, 유럽·미국서 ‘반덤핑’ 판결

중국산 아트지가 유럽에서 반덤핑 최종 판결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향후 5년간 평균 34.3%의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이용, 싼값으로 종이제품을 팔아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유럽 아트지 제조업계의 항의를 받아 들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아트지를 공급할 수 없다. 저가 공급을 시도해도 유럽 세관을 거치는 순간 엄청난 관세가 붙게 된다. 따라서 저가 공급이 의미가 없어져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중국산 아트지에 대한 유럽의 관세율은 APP차이나의 경우 20.0%(AD 8.0% CVD 12.0%), 천 밉 그룹 39.1%(AD 35.1% CVD 4.0%), 태양제지 39.1%(AD 27.1% CVD 12.0%), 기타 39.1%(AD 27.1% CVD 12.0%) 등이다. 평균 부과율을 계산하면 34.3%(AD 24.3% CVD 10.0%)가 나온다. 중국이 올해부터 2013

년까지 모두 130만톤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아트지의 유럽 수출량은 전체 해외 기준, 13%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이번 AD 및 CVD 부과로 유럽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2013년부터는 초과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제지업체는 유럽에 아트지를 연간 12만~15만톤을, 국내 업체는 5만여톤을 수출하고 있다.

앞서 중국 업체는 미국으로부터도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 받았다. 국내 제지업체는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기존 수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철수해 자국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종이제품의 판매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한국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솔페이퍼유통, 영업역량 강화 교육

한솔페이퍼유통(대표 박경재)은 지난 6월 한달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시장 및 고객 지향적 영업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오전 영업본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FSC 인증을 통한 영업 시너지 교육’을 시작으로, 2차례 걸쳐 진행된 ‘영업 실행력 강화 교육’과 ‘성공하는 영업팀이 갖춰야 할 성공 포인트’, ‘실질적이고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채권관리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솔페이퍼유통은 앞으로도 영업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계성제지 창업주 별세

계성제지주식회사 창업주 최낙철 회장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 최 회장은 1934년 고 최주호 우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육군사관학교 12기 출신으로 소령으로 예편하면서 1966년 주식회사 계성제지를 창업했다.

이후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1980·1990년대 국내 제일의 제지·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을 4차례 역임했고 제11대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 출판 뉴스

▼ 현암사, 신사옥 오픈식



창립 66주년을 맞은 (주)현암사(대표이사 조미현)가 지난 6월 23일 오후 4시부터 신사옥 오픈식을 가졌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이뤄진 사옥은 1층에는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법전부가, 2층에는 편집국, 3층은 갤러리, 4층은 자료실 및 선대회장 추모실, 5층은 사장실로 이뤄져 있다.

조미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신의와 성실로 66년을 맞은 현암사가 서교동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됐다. 선대의 뜻에 따라 오래도록 책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출판인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3층에 갤러리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림 선생(소설가이자 한학자, 전 청주대 교수)의 축사와 박맹호 민음사 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김혜경 출판인회의 전회장, 김훈 소설가 등 출판인 및 작가 100여명이 참여해 현암사의 신사옥 오픈식을 축하했다.

현암사 신사옥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12다.

▼ 파주북소리, 오는 9월 30일 개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제1회 파주북소리 2011’와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지난 7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파주북(BOOK)소리 2011’은 9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주최하는 ‘파주북소리’는 ‘책 읽는 사람,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지식의 축제’라는 주제로 출판도시 입주 출판사 150개, 외부 출판사 50개 등 200여 출판사가 참여한다. 책 판매와 판권 수출 등 비즈니스의 장에서 벗어나 출판문화의 진흥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주제별 전시와 심포지엄, 강연, 체험행사 등의 비중을 늘린다. 출판도시 150개 건물 가운데 100개가 행사장으로 사용되며 저자와의 대화, 강연, 대담, 창작 워크숍, 사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주제별 전시에서는 노벨문학상 110주년을 맞아 수상자 107명의 책과 사진, 친필편지, 유품 등을 전시하는 대규모 특별전과 아시아 각

국의 문자를 보여주는 '아시아문자전'이 준비된다.

통일신라 승려 혜초,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 등 여행자 6명의 여정을 따라 실크로드를 탐험하는 특별전 '책으로 실크로드를 열다'에서는 문명의 전달 루트로서 실크로드를 고찰한다. 실크로드의 책과 사진 전시, 전통 음식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특강 등도 열린다.

또 시인 고은,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평론가 김병익씨 등이 '21세기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길사(한국)를 비롯해 이와나미쇼텐(일본), 연경출판공사(대만), 삼경출판사(중국) 등 아시아 각국 출판사 편집자들이 현 시대 출판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과 아시아 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출판인과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국제출판포럼도 열린다. 김언호 조직위원장은 "다른 도서전이 많이 열리지만 단순 전시와 판권을 사고 파는 곳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파주북소리는 책을 생산하는 출판도시가 독자와 책을 만나는 공간으로 변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4대 도서전으로 올라선 베이징 도서전과"고서축제인 도쿄 간다고서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대표 책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동해' 표기 옛 영국지도 3점 파주시에 기증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과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회장 김정선)는 지난 7월 8일 동해를 'COREAN SEA'로 표기한 영국 고지도 3점을 파주시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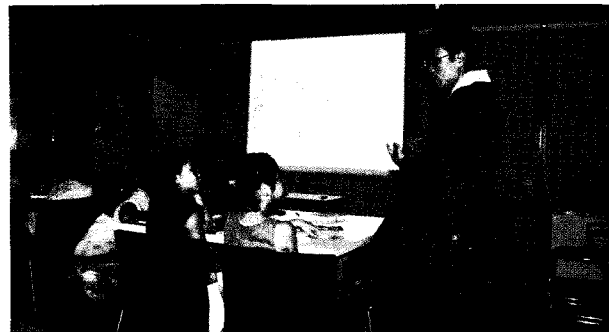
고지도는 1794년 영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큰 것 1점은 가로 99cm, 세로 80cm 크기이며, 작은 것 2점은 모두 가로 73cm, 세로 56cm 크기이다. 3점 모두 검은색 글씨로 동해를 '한국해(COREAN SEA)'로 표기했다. 큰 것은 세계지도, 작은 것 1점은 아시아지도, 다른 1점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나타낸 지도다.

이 고지도는 '파주북소리2011축제' 추진위원회가 9~10월 책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 6월 1일까지 유럽지역 책마을을 견학하면서 영국 헤이온 와이 책마을 고서점을 방문했을 때 재단과 협의회가 공동으로 사들인 것이다.

기증식을 끝내고 이인재 파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중한 역사자료(고지도)는 중앙도서관에 전시해 시민들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파주출판도시 독서캠프 이달 16일부터



파주출판도시에서 독서캠프가 열린다. 북앤이벤트가 주최하는 이번 캠프의 주제는 창의력이다. 그림작가와 함께 책 속 삽화를 다른 형태로 그려보고 남극탐험 계획 짜기, 책 표지 디자인, 지도 만들기 등 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책의 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출판사와 인쇄사, 종이박물관 등 책 만드는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8월 16일부터 2박3일간 파주출판도시 호텔 지지항에서 열리는 파주독서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www.pajubookworld.com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23만원.

▼ 한국출판학회, 제8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



(사)한국출판학회(회장 남석순)는 지난 7월 22일 '한국 출판통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제8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은 현시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출판계의 과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다.

김경일 김포대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한국출판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김명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과장, 김병희(Yes24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 노준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팀장,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배양희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300호 특집호 발행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최근 통권 300호를 맞았다. 기획회의는 300호 특집으로 한국의 대표 저자 300명을 분석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1981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0년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오른 책 중 시와 소설을 제외한 책의 국내 저자를 살펴보고 시대별로 어떤 유형의 저자가 요구돼 왔는지 분석했다.

문사철(文史哲-문학 역사 철학)이 중심이었던 1981년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는 학자나 문인, 저널리스트가 주요 저자군을 이뤘다. 6월 민주항쟁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김우중, '신화는 없다'의 이명박, '7막 7장'의 홍정욱 등이 이른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저자로 등장했다. 영어와 컴퓨터 등을 다룬 실용서 저자도 나타났다.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심화되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준 자기계발서 저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한국의 부자들의 한상복,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이민규,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의 정철진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속에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저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고통 속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적절히 자극했다. 또 소셜미디어의 위력이 강해져 이제 누구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글을 쓰면서 저자가 될 수 있게 됐다.

'기획회의'는 1999년 2월 무가지 '송인소식'으로 창간된 뒤 2004년 7월 오늘날의 이름으로 바꾸며 유가지로 전환했다. 이 잡지를 발행해 온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출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인데, 특히 좋은 국내 저자를 많이 발굴하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호를 맞아 한국의 대표 저자 300명을 다뤘다"고 밝혔다.

▼ 알라딘, 전자책 판매동향 발표

알라딘(대표 조유식)은 최근 전자책 판매도서 및 매출을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분기 전자책 판매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알라딘 2분기 전자책 판매동향'에 따르면, 전자책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알라딘 김채희 전자책MD는 "이용자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자책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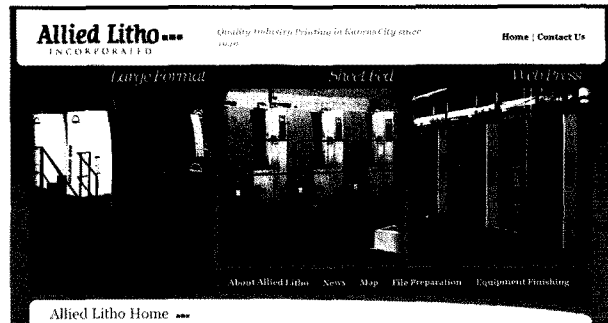
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책 시장 초기에는 전자책을 빨리 접해보고 싶은 소수의 독서자들이 주로 전자책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구매하다 보니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은 감소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책 이용객의 연령대는 30대의 비중이 38%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고객의 이용이 52%정도로 1분기 47% 대비하여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 분야는 소설로, 전자책 구매고객의 종이책 구매 성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해외뉴스

▼ 얼라이드 리소사, 로랜드 900 추가 구입



켄자스 시티에 위치한 얼라이드 리소(Allied Litho)사는 라지 포맷의 'ROLAND 900'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얼라이드 리소사는 'ROLAND 900' 장비의 추가 구입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예정이다.

ROLAND 900은 시간당 1만4000매 생산이 가능하며, 최상의 인쇄 품질과 더불어 대부분의 공정을 전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 판 교환 시스템과 프린트넷 워크플로 통합이 포함되어 있어 종이와 골판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카톤용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용지의 두께는 0.04~1.2mm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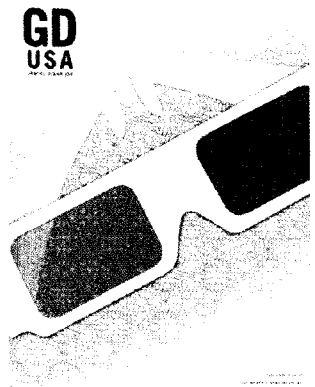
1949년 설립된 얼라이드 리소사는 미국 중앙 지역 내에서 두번째로 큰 인쇄업체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만로랜드 매엽기만 사용하고 있다. 얼라이드 리소(Allied Litho)는 30개월 전 'ROLAND 900 XXL' 구입해 생산량이 두 배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

얼라이드 리소의 CEO인 팀 하이어는 "우리는 2교대로 두 대의 ROLAND 900 장비를 가동하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때때로 주문량이 많을 경우에는 3교대로 장비를 가동하며 납기를 맞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얼라이드 리소사는 만로랜드 인쇄기를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며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로랜드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업체에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 코닥, 그래픽 디자인USA(GDUSA) 후원



코닥은 Graphic Design USA(GDUSA)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테스트는 지난 6월 13일에 시작,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우승자는 GDUSA의 9월호에서 표지를 장식하며 우승자가 발표된다.

GDUSA의 출판담당자 Gordon Kaye는 “우리의 독

자들은 언제나 경쟁력 있는 기술을 찾고 있으며, 디지털 인쇄와 정말 독특한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좋은 기회”이며 “작년 컨테스트에 참가했던 우리 독자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에게 디지털로 디자인하는 것은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슈라고 말했다. 우리는 올해 입체 인쇄를 넘어서서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한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2011년 후보작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하루 빨리 보고 싶다”고 밝혔다.

GDUSA는 모든 후보작을 보고 전체적인 시각 효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넥스프레스 5번째 이미징 유닛 솔루션 기능이 커버 디자인에 얼마나 잘 통합되었는지에 기반해 우승자를 선정할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승 디자이너는 2011 Graph Expo에서 코닥의 게스트가 되며 10명의 상권권자들은 코닥의 부스에서 그 작품이 소개되는 기회를 갖는다.

넥스프레스 5번째 이미징 유닛 솔루션은 디멘셔널·축각 효과를 더했으며, 부분 또는 전체 반짝임 효과가 돋보인다. 색상면에서도 중요한 브랜드 색상 또는 맞추기 어려운 팬톤을 위한 색상이 확장되었다.

코닥의 디지털 인쇄 솔루션의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인 Vince Ferraro는 “언제나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프레스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 겸손해졌고 놀라워했다”며 “우리는 우리 고객들의 손을 거치기 전까지는 이 기술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컨테스트는 우리가 우리 도구의 진정한 힘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그 도구들이 어떻게 고객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 올해의 후보작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1 컨테스트에 대한 참가신청은 www.gdusa.com/digitalprintingcontest/에서 하면 된다.

▼ 코닥, Cosalco서 프리젠테이션

코닥은 코스타리카 플렉소그래픽 인쇄와 포장 솔루션 기업인 Cosalco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플렉소 프레스, 판재, 자재, 잉크와 관련된 제품에서의 파트너와 함께 교육적인 프리젠테이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주에서 포장 부문 디렉터인 코닥의 John Anderson 박사는 기초 연설을 통해 플렉소 시장의 트렌드와 코닥의 포장 포트폴리오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닥 플렉셀 NX 디지털 플렉소그래픽 시스템과 최근에 소개된 코닥 플렉셀 NX 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Cosalco 그룹의 회장 Alvaro Lopez는 “지난 25년 동안 포장 트레이드 샵과 상업용 인쇄사업자들을 상대하면서 눈에 띄만한 기술 변화들을 보았다”며 “코닥 플렉셀 NX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인쇄사업자들에게 전세계에 있는 그들의 고객들에게 부가가치를 더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플렉셀 NX 시스템은 디지털 판재제작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진정으로 플렉소 인쇄의 경계를 허물도록 해주며 이 시스템은 진보된 이미징 기술과 자재 과학을 결합해 놀라운 인쇄 도중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판재를 만들어낸다. 플렉셀 NX시스템은 인쇄 품질을 차별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감소된 폐기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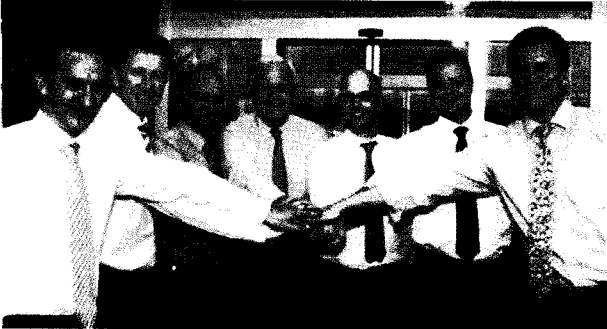
▼ 머큐리사, 코닥 프로스퍼5000XL 프레스 도입

코닥은 최근 머큐리 프린트 프로덕션이 머큐리의 새로운 디지털 잉크젯 코닥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의 설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머큐리사의 이런 투자로 앞으로 3년 동안 머큐리에서 4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머큐리는 코닥 프로스퍼 프레스를 로체스터에서 처음 설치한 기업으로 로체스터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개발한 코닥의 혁신적인 스트림 잉크젯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머큐리사의 최고 경영자 John Place는 “도서 출판의 변화에 맞게, 우리 고객들은 재고나 유통과 같은 초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필요해 우리를 찾고 있다”며 “디지털 인쇄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주며, 코닥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 뒤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오늘날 고객들의 요구를 쉽게 충족시키고 미래에도 그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머큐리에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를 설치함에 따라 그들의 사업을 변화시키려는 도서 출판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코닥에게도 시연장소가 되었다. 머큐리는 이번 투자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81개의 직업과 40개의 새로운 직업을 로체스터 지역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머큐리사의 최고경영자인 페레즈는 “머큐리는 성공과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인 혁신적인 기업의 대표 사례”이며 “그 회사는 시장을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들을 위한 최신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는 주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머큐리에게도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더 많은 보안과 새로운 직업들을 생성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물러마티니, 리마시스템과 업무협작**



인쇄후가공 기기를 공급하는 물러마티니와 포스트 프레스의 대표주자인 리마시스템이 업무협작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7월말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됐다.

이번 업무협작에서는 물러마티니사의 중철, 무선, 양장에 이르는 인쇄 후가공라인과 웹오프셋 인쇄라인, 뉴스그립(Newsgrip)과 뉴스베이어(Newsveyor) 등으로 이루어지는 메일룸 시스템에 리마시스템(RIMA-SYSTEM)에서 공급하는 스타커, 팔레타이저 등의 시스템이 결합된다. 즉, 물러마티니의 뉴스베이어(Newsveyor) 메일룸 컨베이어 시스템과 리마 시스템의 스타커 및 팔레타이징 로봇을 결합시키는 라인이나 물러마티니의 중철제본, 무선제본, 양장제본 등의 후가공 시스템에 리마시스템의 스타커, 팔레타이저 또는 번들라인 등을 연결시키는 솔루션이 가능해진 것이다.

브루노 물러 물러마티니그룹 CEO는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투자의 안정성을 창조하는 동시에, 인쇄와 인쇄 후가공은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로 만들어가는 환상적인 시스템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물러마티니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강력해진 가격경쟁력과 넘치는 역량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그 효율성을 배가시킨 최고의 프레스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작은 프레스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마시스템은 세계적인 그룹사로 단순한 스타커로부터 고도로 자동화된 팔레타이징 로봇에 이르는 포스트 프레스 솔루션을 상업인쇄 분야와 윤전 그라비아 인쇄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소형 신문사 및 복바인딩 장비 뒤쪽에서 인쇄물을 핸들링하는 시스템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솔루션이다.

▼ **하이델베르크 ECO 프린팅 어워드 시상식**



하이델베르크는 제2회 하이델베르크 ECO 프린팅 어워드 시상식을 지난 7월 6일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PMA)에서 개최했다. 하이델베르크 ECO 프린팅 어워드 시상식은 매엽오프셋인쇄사에 대한 국제적인 친환경상으로 상금뿐 아니라 수상자들은 PMA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가장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인쇄 회사에 대한 상으로 미국 John Roberts사의 CEO 마이클 킨(Michael Keene, 사진왼쪽)씨가 받았으며, 상금은 3만 유로다. 최고의 친환경 혁신 솔루션에 대한 상은 호주 인쇄사인 Vega Press의 롭 누젠(Rob Nugent, 사진 오른쪽)씨가 받았으며 상금은 2만 유로다.

4대륙 19개 국가에서 약 45개 회사가 이번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태리,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인쇄 회사들이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IFEU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의 심사위원단 대변인인 Dr. Achim Schorb씨는 “업계 내 친환경 활동으로 제출된 제안서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2009년보다 더욱 범위가 확대되었다. 혁신적 독립 솔루션보다 지속가능한 통합 솔루션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발표했다.

수상식에서 기계부분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렌즈(Stephan Plenz)씨는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인쇄라는 목표를 시스템적으로 노력한다. 등록된 후보들은 고객들이 경제적 성공,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에서 훨씬 높은 사회적 책임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하이델베르크, 모조방지 기술 발표**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브랜드 상품 제조사에게 제품 복제에 대한 보호 기능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인 1-TAG 기술을 발표했다. 모조 방지를 위해 제품에 1-TAG 보안 라벨을 장착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제품 모조 여부를 쉽게 검사할 수 있다.

이 라벨은 구리 실로 형성된 무작위 패턴으로 구성되며 고유의 2차원의 QR 코드가 따라온다. 이를 통해 제품 자체나 패키징에 지문과 같이 각 제품 고유의 독자성을 부여한다.

소비자들은 무료 모바일 소프트웨어(앱)를 통해 브랜드 제품의 모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할 때는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기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애플 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렌츠(Stephan Plenz)씨는 "1-TAG는 브랜드 제품 제조사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제품의 최종 사용자에게 모조품에 대해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높은 보안 수준과 단순한 방법으로 1-TAG는 건강 혹은 보안에 민감한 제품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말했다.

▼코닥, 버사마크 VL-시리즈 인쇄 시스템 기술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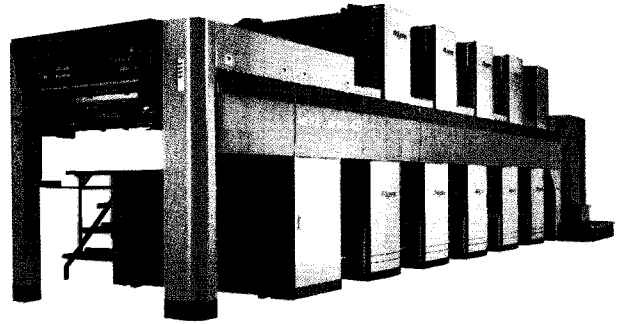
코닥은 코닥 버사마크 VL 시리즈 인쇄 시스템의 인쇄 품질, 안정성, 사용자 관리 개선을 통해 고객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버사마크 VL-시리즈 인쇄 시스템은 수성 안료 또는 도료 잉크를 사용하여 전체 페이지에 고품질, 고부가가치 프로세스 컬러를 만들며 거래 문서, 다이렉트 메일 및 기타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터 인쇄 애플리케이션을 가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코닥의 디지털 프린트 솔루션 마케팅 부사장 빈스 페라로는 "VL 시리즈는 적절한 컬러 출력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고객을 넓힐 수 있도록 만드는 일꾼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버사마크 VL 시리즈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및 주요 혁신 내용은 일관성 있는 도트 크기 변화, 잉크 가스 제거 및 온도 제어 기술을 통한 프린트헤드 수명 향상, 예방 정비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가동 시간 및 구성요소 수명 개선 등이다.

코닥은 버사마크 VL-시리즈 시스템용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이렉트 메일, 거래 및 트랜스프로모 인쇄, 양식 교체, 원격 뉴스페이퍼 생산 등이 있으며 거래 및 홍보 인쇄물 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용자에게 고객 확보 및 유지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페이지 당 비용"을 "페이지 당 수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닥의 페라로 부사장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는 오늘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코닥의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프린트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다.

▼ 시그네처사, 고스 인쇄기 도입



미국 덴버에 위치한 시그네처사는 Goss의 웹프레스 시스템을 예상보다 빨리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스프레스기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신설 공장에서 제작되며 신문과 일반 출판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이번에 시그네처사에서 도입하는 SSC모델은 4층 구조의 인쇄기로 고스의 옴니콤(Omnicom)시스템을 통해 제어되며 4겹으로 접을 수 있는 N-40 폴더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잭슨빌 공장은 시그네처사로서는 처음으로 갖게 되는 미국 동부해안의 지사가 된다. 브라이언 모서 출판인쇄부문 제작이사는 "이번에 도입되는 고스 인쇄기는 예상외로 새로운 공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컸지만, 설비, 교육, 기기 통합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며 "디지털 프리프레스 시스템을 여러 현장에서 한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미쯔비시, 영국 쇼룸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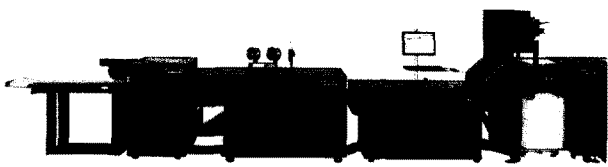


미쯔비시는 영국 시장에서의 매엽 인쇄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리즈지역의 쇼룸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 지역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면서 부품 생산을 맡아 온 리즈지역의 쇼룸이 폐쇄됨에 따라 미쯔비시의 영국 대리점인 엠 파트너스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부품 생산은 네덜란드로 옮겨져서 현지의 미쯔비시 부품 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숙련공이 리즈에 머물며 유럽 전역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머레이 로크 엠파트너 전무이사는 "제조사는 실용적인 방안을 취해야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의 매엽 인쇄기 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75%까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쯔비시는 자사의 주요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중복되는 지출은 줄여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회사의 주요 인프라를 이용하여 고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기술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중복되는 지출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두 지역에 있던 부품 설비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 부품을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와 중국 대륙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비덴스 프린트, 듀플로 제책기 도입**



영국의 인쇄사인 프로비덴스 프린트 솔루션즈는 듀플로의 제책기 시스템인 듀플로 시스템 5000을 도입, 자동화 공정을 통해 작업속도가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프로비덴스는 제록스 아이젠4 디지털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작업속도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제오프 오벤덴 프로비덴스 공장장은 “다재다능한 기기를 보유하게 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듀플로 기기를 사용하고부터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젠4 디지털프레스를 구매하기 전에는 물리마티니사의 제품으로 제책작업을 해 왔다”며 “듀플로시스템 5000 제책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시간당 5000권까지 제작, 가능하며 자동 설정, 작업간 변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처럼 원고의 포맷에 따라 작업 공정을 배치할 필요가 없고 설정에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 **쇼어우드**

영국 패키지사로는 첫 하이델베르크 컬러 인증 획득



획득으로 포장 인쇄에 대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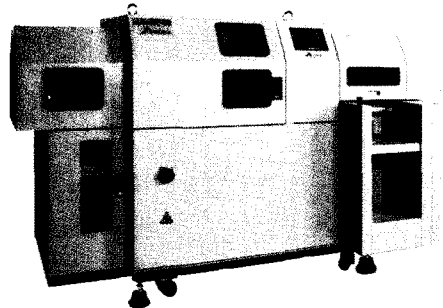
쇼어우드 포장(Shorewood Packaging)은 영국 패키지업 체로는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의 컬러 콘트롬에 대한 ISO 12647-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쇼어우드는 판지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이며 이번 인증서

쇼어우드사는 ISO 12647-2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고 소매 유통 부문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매 6주마다 현재 주요 고객들에 대한 출력데이터와 인쇄 차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라인트 에반스 쇼어우드 인쇄부장은 쇼어우드는 컬러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전 장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하이델베르크의 5도 인쇄기 CD74 및 SM74 등을 각 인쇄기의 이미지 콘트를 촉광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라인트 인쇄부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인쇄 품질에 대해 고객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쇼어우드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여 세계 유명 브랜드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햄튼 프린팅이 영국 인쇄사로서는 최초로 하이델베르크 ISO 12647-2 컬러 콘트를 기준을 획득한 바 있으며 크리스 쿠퍼 햄튼 프린팅 상무이사는 ISO 인증으로 자사의 우수한 인쇄실력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 **힐레스, 호리존 HT-30 도입**



영국의 힐레스 프린터(Healeys Printers)는 일본의 호리존 HT-30 삼면 트리머를 도입, 작업 공정이 향상되어 절단기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필립 도드 상무이사는 원래 세 대의 절단기에 두 명의 운영자를 고용했으나 호리존 HT-30을 구매하고 나서는 절단기를 줄이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효과에 대해 필립 도드 상무 이사는 “호리존 BQ-470의 퍼펙트 바인더에서 공급된 책이 절단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HT-30이 보다 효율적이며 다른 절단 작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Q-470은 HT-30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HT-30은 60초 이내 변환 가능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20개의 작업이 저장되며 시간당 최대 500권을 제작할 수 있다. 힐레스는 연 매출 3백만 파운드를 올리고 있으며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도 컬러 인쇄물과 미술 인쇄에 주력하고 있는 증견인쇄사이다. ↻